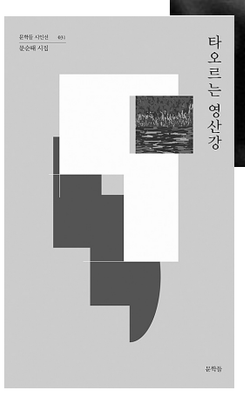
“영산강은 전라도인들의 힘이자 근기”

문순태 소설가 세 번째 시집 ‘타오르는 영산강’
소설 ‘타오르는 강’ 모티브로 다수 작품 수록
1~4부 걸쳐 영산강에서 얻은 시상·삶의 회고 등

문순태 작가



소설가들이 쓴 시는 어떤 울림이 있을까? 평생 서사를 엮어온 소설가가 압축적인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학은 원래 시에서, 노래에서 출발했다. 시인이든 소설가든 창작을 한다는 것은 시를 쓰는 행위이다. “모든 사람은 시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있듯이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신만의 시를 쓰며 한 생을 산다.

문순태 소설가가 세 번째 시집 ‘타오르는 영산강’(문학들)을 펴냈다.

나주 영산포 ‘타오르는 강 문학관’ 개관을 기념해 펴낸 작품집은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다수 실렸다. 현재 작가는 담양 생오지에서 영산포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겨 영산강과 벗하며 살고 있다.

문 작가는 시집을 펴내게 된 계기에 대해 “나는 영산강이 되살아나고 진정으로 강의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며 시집을 펴냈다”고 전했다.

그는 전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산강이 흐른다고 생각한다. 영산강은 ‘전라도인들의 핏줄’과도 같다는 것이다.

“누대에 걸쳐 영산강은 전라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안고 흘렀습니다. 빛과 그림자까지 투영돼 있지요. 영산강은 꺾일 줄 모르는 전라도 사람들의 힘이자 근기인 셈이죠.”

문 작가는 그렇게 영산강, 아니 ‘타오르는 강’을 바라보며 평생 원고지와 사투를 벌여왔다. 소설 ‘타오르는 강’은 노비들이 민중을 중심으로 발전해, 역사를 바꾼다는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그에 따르면 1886년 노비세습제가 풀려 노비들은 자유로운 몸이 되지만 주인을 떠나지 못한다. 조선조 때는 전체 인구의 40%가 노비였다는 기록도 있다. 작가는 노비들이 점차 세상에 눈을 뜨고 민중의관점에서세상을바꿔나가는면들을 소설로 그렸다.

이번시집은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는 영산포로 옮겨온 후 강에서 얻은 시상을 담은 22편이 실려 있다. 2부는 세 번째 시집 ‘홍어’ 이후 쓴 홍어에 관한 작품이며, 3부는 작가 삶의 흔적들을 돌아본 시를 담고 있다. 마지막 4부는 젊었을 때 써두었던 연시들이다.

문 작가가 시를 쓰게 된 것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나의 시적 뿌리는 다형 김현승 시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했다. 광주고 2학년 재학시절 김현승 시인을 만나 시의 씨앗이 잉태됐다는 것이다. 대학 4학년 때 김현승 시인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추천됨으로써, 시인이라는 ‘직함’으로 문단에 먼저 나왔다.

아마도 그는 시인으로 출발해 다시 시인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택한 듯하다. 아마도 긴 호흡이 필요한 소설을 쓰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올해 우리나이로 86세다.

지난 2013년 첫 시집을 펴낼 당시 그는 “나에게 소설이 논과 밭이라면 시는 꽃밭이다. 그동안 나는 고향의 산자락 묵정밭을 열심히 일구어 소설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심이 강파른 내 가슴을 몸살나도록 흔들어댔다. 이제 다 늙어서야 곡식 대신 꽃씨를 뿌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홍어를 모티브로 100여 편의 시를 묶어 작품집을 펴냈다. 당시 시집은 홍어 예찬이자, 종합적인 홍어 인문서로 회자가 됐다.

이번 시집은 늘 영산강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들이 눈에 띈다.

“영산강을 따라 걷는다/ 갈 곳을 잃은 사람에게/ 강물은 길이 되고/ 동반자가 된다/ 강의 마음으로/ 낯선 길 따라 걸으며/ 때 묻은 시간 헹구고/ 헛된 욕심 흘려보내고 나니/ 원한도 미움도 물거품 되고/ 발걸음 바람처럼 가벼워진다…”

‘영산강을 따라 걷다’는 작가가 인생 만년을 여전히 영산강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생각하는 영산강은 높낮이 없는 ‘수평세상’이다. 그가 꿈꾸고 열망하는 세상은 영산강과 같은 세상인 것이다.

“강은 높은 곳보다 낮은 세상을 지향하고 비어 있는 것들을 채우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요. 강의 흐름을 보며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숨 쉬는 거대한 생명체를 보게 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덩실덩실~ 남도 민요의 멋과 흥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의 향연’ 다음달 2일 대극장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어느덧 겨울의 문턱인 입동(11월 7일)이 코 앞에 와 있다. 뜨거운 가무악 레퍼토리로 문화예술 열기를 더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국악의 향연’을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 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에서 펼친다.

청성자진한잎이라는 본명으로 알려진 기악 독주곡 ‘청성곡’으로 시작한다. 가곡 ‘태평가’를 반주하던 선율에 뿌리를 둔 이 곡은 성악곡의 유려하고 섬세한 선율, 청성(맑다)한 시김새의 멋이 깃들어 있다. 대금 연주에 황지민.

기악중주 ‘활의 노래’는 다양한 리듬꼴과 해금의 여러 주법을 제시하는 곡이다. 25현 가야금 선율(김태경)에 실리며 해금 연주에 박하윤, 작곡에 이정면. 전여경이 추는 무용 ‘살풀이’도 레퍼토리에 있다. 남도 무속음악의 시나위 가락에 맞춰 추는 춤을 뜻하며 흰색 옷과 긴 수건을 이용해 맺거나 푸는 과정을 춤사위로 표현한다.

‘김오채류 선반설장구’는 열채와 궁글채가 내는 음색·음고의 대비, 변화무쌍한 가락이 특징적이다. 화려하고 흥이 넘치는 ‘엇붙임-너름새’로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끝으로 두 편의 민요 ‘정선아리랑’, ‘육자배기’가 울려 퍼진다.

장악과 정순영 주무관은 “활대로 두 줄을 문질러 연주하는 해금의 주법을 극대화한 곡 ‘활의 노래’, 어깨춤을 덩실거리게 하는 ‘김오채류 선반설장구’ 등 흥겨운 노래들을 준비했다”며 “지역 향토 민요와 남도 지역의 대표 민요 등이 전통예술의 풍미와 운치를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어린이국악단원들과 신나게 놀아볼래?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다음달 2일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놀이판 위에서… 우리 같이 놀아볼래?”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객원 예술감독 임오섭)이 정기공연 ‘우리 같이 놀아볼래?’를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어린이국악단 단원들이 올 한 해 준비한 가무악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서도 민요를 새롭게 구성한 가야금병창 3중주 ‘술비타령’으로 막을 올린다. 서도뱃노래 계열의 노래지만 노동요적 성격이 강한 이 곡은 닻줄(술비)을 꼬면서 풍어를 기원하는 마음을 악곡에 담았다.

한반도 최초 현악기로 알려진 마한금(馬韓琴) 합주곡 ‘김창조 가락에 의한 영보정풍류’도 울려 퍼진다. 줄풍류의 고즈넉한 풍미를 간직한 이 가야금은 광주 신창동(구 마한 지대)에서 출토되면서 이윤선 연구자 등에 의해 ‘마한금’으로 명명됐다.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동작이 주를 이루는 창작무 ‘꽃 나들이’도 무대에 오른다. 끝으로 어린이 연희극 ‘우리 같이 놀아볼래?’는 서로 차이가 있는 ‘댕댕이’와 ‘냥냥이’ 두 친구가 다름을 극복하고 교감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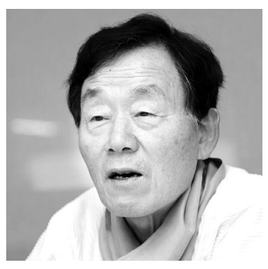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정기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임오섭 객원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은 ‘어린이 예술가’들이 오랜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작품을 관객들 앞에 선보이는 자리”라며 “연희극 연출과 악기 구성 등 고민이 투영된 작품에 관객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승원 ‘아제아제 바라아제’ 개정판 발간

딸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맞물려 주목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수상과 맞물려 부친인 한승원〈사진〉 소설가의 작품도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승원의 대표작 ‘아제아제 바라아제’ 개정판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원작이기도 하다. 임권택이 감독을 맡았으며 고(故) 강수연이 주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85년에 출간된 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에서 제목을 차용했다. ‘가자, 가자,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야기는 진성과 청화 두 여승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진성은 이상 세계를 추구하며, 청화는 파계 후 세속을 떠돈다. 작품은 두 여승의 삶을 매개로 참다운 자유인의 길은 무엇인지 사유하게 한다.

한승원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연蓮의 줄기와 뿌리는 시궁창 같은 진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아름답고 깨끗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결벽증에 가까운 청정함만을 고집하고 혼자만의 깨달음을 귀하게 간직하고 깊은 곳에 박혀 고고하게 사는 것은 깨달음의 길도 잃고 제도해야 할 중생도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전했다.

장흥 출신의 한승원 작가는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목선’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한국불교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학제’, ‘흑산도 하늘길’, ‘해산 가는 길’, ‘다산’, ‘원효’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